

인쇄하기



인쇄

신아일보 (<http://www.shinailbo.co.kr>)[HOME \(/\)](#) > [로컬+ \(/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17\)](#) > [경기 \(/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87\)](#)

시흥소방서, 혈액투석 의료기관 긴급 현장안전 점검 실시

송한빈 기자 | 승인 2022.08.11 10:56



사진/시흥소방서제공

경기 시흥소방서는 지난 8일부터 2주간 관내 혈액투석실이 있는 병원 및 의원 4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긴급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긴급점검은 지난 5일 경기도 이천시 의료기관 화재로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투석환자들 및 간호사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혈액투석 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긴급점검의 첫 대상인 관내 요양병원 점검에서 소방서는 화재 발생시 관계자 행동요령에 대해 피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비상구 및 방화문 앞 물건적치금지 픽토그램도 배부하여 관계인에 의한 실질적인 소방대상물 관리가 될수있도록 지도하였다.

이날 방문대상인 요양병원 민경서병원장은 “투석치료의 특성상 화재와 같은 응급 상황시에는 투석기계와 환자 사이의 혈관라인 분리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평소 응급상황에 대비해 의료인력들의 사전훈련과 환자 대피체계가 잘 준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에는 병상과 커튼, 침구류 등 가연성 물질이 많고 방화문 등 피난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경우 연기가 순식간에 확산되어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높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아 병원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때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

이에 이번점검은 화재 발생시 관계자의 피난계획 수립 여부, 유사시 피난실행 확보 방안을 확인하고 소방시설 미작동 방치행위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 관리 상태 확인, 피난설비 이용 실제 피난가능 여부 확인 등 소방시설 및 안전관리분야에 대해 중점을 두고 안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흥소방서장은 “일단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더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 안전관리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시흥/송한빈 기자



송한빈 기자 기자

 인쇄